

湯顯祖의 儒俠意識과 《紫釵記》의 완성

崔 洛 民*

<目 次>

一. 序 論	2) 不殺人之劍
二. 儒俠意識의 形成背景	四. 儒俠意識과 《紫釵記》완성
三. 湯顯祖의 儒俠意識	五. 結 論
1) 大人之俠	

一. 序 論

중국 전통사회의 문화주체였던 사대부의 정신세계는 儒·佛·道와 같은 상층문화 이외에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방면의 하층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층적인 특징을 가졌다. 특히 민간에서 유행한 “길을 가다가 부당한 일을 보게 되면 칼을 뽑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路見不平, 拔刀相助)” 游俠精神은 陽剛의 성격을 결여한 상층문화를 보완하는 작용을 하였고, 사대부들의 정신세계와 이상인격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明代에 들어 《水滸傳》과 같은 英雄傳奇¹⁾와 俠을 소재로 한 희극작품

* 韓國海洋大學校 專任研究員

1) 晚明시기에 진행된 《水滸傳》에 대한 詮釋과 평가는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余象斗는 俠客이란 “并軌于君子”라고 하였고 汪道昆은 “有俠客之風, 無暴客之惡.”이라 하였으며, 沈璟은 俠과 正義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만명은 俠義를 고취하고 새로운 俠客의 형상을 마련하던 신시대라고 할 수 있다. (龔鵬程, 《中國文人階層史論》(蘭州, 蘭州大學出版社, 2004), 277-278 쪽)

들이 사회에 널리 보급되자 백성들의 游俠에 대한 흥미와 숭배는 더욱 깊어졌고, 문인들 중에는 聖賢의 도를 제쳐두고 스스로를 俠이나 豪傑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²⁾ 민간에서 발생한 俠義정신은 晚明에 이르러 社會의 영웅인격에 대한 숭배심리상태와 결합되어 협을 영웅적인 인물로 전화시키게 되었다.³⁾ 晚明時期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희곡작가인 湯顯祖(1550~1616) 역시 협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王思任은 湯顯祖의 대표작인 “臨川四夢”에 대해 “《邯鄲記》의 주제는 仙이고, 《南柯記》의 주제는 佛이다. 《紫釵記》의 주제는 俠이고, 《牡丹亭》의 주제는 情이다”⁴⁾라고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湯顯祖의 정신세계 역시 儒·佛·道를 중심으로 한 상층문화 이외에 민간에서 발생한 俠의 정신에도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湯顯祖가 가졌던 협의 정신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곤경을 위해 뛰어들면, 이미 생사존망을 잊어버리는,”⁵⁾ 즉 ‘의를 중시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重義輕生)’ 유희정신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는 《大學》을 중심으로 ‘赤子之心’과 ‘孝慈’를 강조한 羅汝芳의 가르침과 《周易》의 생명사상을 통해 자연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實生意識’⁶⁾을 확립하였고, 儒·佛·道 사상에 내재된 생명존중사상과 협의 정신을 결합하여 ‘자연생명가치를 존중하는 협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신을 ‘儒俠’이라는 말로 정의하였다. 그가 제기한 儒俠意識은 信義를 위해 지키기 위해 생명을 가볍게 희생하는 游俠의식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近代時期 章太炎이나 譚嗣同과 같은 지식인들이 제기한 儒俠⁷⁾意識과

참고)

- 2) 邵毅平, <從「列朝詩集小傳」看晚明精神的若干表現>, 章培恒主編 《明代文學研究》(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90), 278-284 쪽 참고.
- 3) 龔鵬程, 《中國文人階層史論》(蘭州大學出版社, 蘭州, 2004), 280 쪽
- 4) 王思任, <批點玉茗堂牡丹亭詞敘>: “邯鄲, 仙也. 南柯, 佛也. 紫釵, 俠也. 牡丹亭, 情也.”
- 5) 司馬遷 《史記·游俠列傳序》 “不愛其軀, 赴士之阨困 既已存亡死生矣”
- 6) 拙稿, <湯顯祖의 “貴生思想” 初探>, 《中國學研究》(濟南, 濟南出版社, 2001) 第4輯.

도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명의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자연 생명의 가치’를 중시한 당현조의 ‘儒俠意識’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와 문학창작과의 관계, 특히 《자차기》에의 반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二. 儒俠意識의 형성배경

江西省 撫州府 臨川縣의 한 사대부집안에서 출생한 당현조는 천성적으로 남에게 아무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 였으며⁸⁾, 어려서부터 ‘氣義之士’나 ‘儒俠之間’⁹⁾의 인물들과 교류하기를 즐겨하는 등 협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협에 대한 그의 관심이 처음부터 생명을 긍정하는 儒俠意識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儒俠意識은 당현조의 협에 대한 동경이 江西라는 인문지리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협이라 부르기를 즐겨했던 晚明이라는 시대환경 속에서 점차 변화하고 발전한 결과물인 것이다.

朱熹는 강서의 붉은 대지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대개가 뛰어나고 문장을 짓는데 능숙하였으며,”¹⁰⁾ “강서의 土風은 기이한 논의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¹¹⁾고 하였다. 특히 당현조의 고향

- 7) 장태염이나 담사동과 같은 근대지식인이 강조하는 ‘儒俠’이란 ‘殺身成仁’, ‘捨生取義’와 같은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이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희생하는 유가의 정신과 信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협의 정신이 하나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들은 儒와 俠이 지닌 상무정신과 희생정신을 부활시켜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劉凌 編校, 《章太炎學術論著·儒俠》(浙江人民出版社, 1998, 浙江), 84-87쪽 참고.
- 8) 湯顯祖, 《湯顯祖全集》(徐朔方箋校, 全4冊,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9), 詩文卷44, <答徐中宇先生>: “某少有伉壯不阿之氣, 然終不能消此真氣.”
- 9) 湯顯祖, 위의 책, 詩文卷23, <西音賦>: “周無懷與今侍御饒伯宗, 并予弱冠時友也. 周君氣激虹霓, 心注時務, 其人雖短, 在乎儒俠之間”
- 10) 朱熹, 《朱子語類》卷116: “江西人大抵秀而能文”
- 11) 朱熹, 위의 책, 卷124: “江西土風, 好爲奇論, 恥與人同.”

임친은 “풍속이 儒雅하고, 일을 좋아하며 氣概를 숭상하는”¹²⁾고장이었다. 唐·宋 이래 수많은 문인과 학자, 관리를 배출한 강서의 문화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湯顯祖¹³⁾는 관직에 나갔던 10여 년을 제외한 생의 대부분을 임친에서 보냈고, 그 속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蘄水朱康侯行義記>에서 당시 강서지역 학자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직 기이한 것은 江西와 楚지역 사이에 학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서에는 儒俠이 많고, 초지역에는 俠儒가 많다.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형제 중당 친구들의 위급함에 있어 몸으로서 참여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 중 일반 범인들의 견해에서 나오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¹⁴⁾

湯顯祖는 강서 출신의 학자들에게는 儒者의 성격에 俠의 풍격을 갖춘 ‘儒俠’이라 부를만한 사람들이 많고, 초지역에는 俠의 성격에 유학자적인 풍모를 더한 ‘俠儒’¹⁵⁾라 부를 수 있는 학자들이 많이 출현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일반 범인들의 견문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 힐난 하였다. 湯顯祖가 진정으로 존중한 강서학자들은 적극적인 좌파사상가로서 인간의 소박

12) 李賢, 《大明一統志》: “其俗風儒雅, 喜事而尚氣”

13) 拙稿, <湯顯祖의江西意識與吳文人的矛盾>, 《戲劇研究》(上海, 上海戲劇學院出版社, 2001年) 第1期 참고.

14) 湯顯祖, 앞의 책, 詩文 卷34, <蘄水朱康侯行義記> “獨怪江楚之間, 不少學者. 江多儒俠, 而楚多俠儒. 以所聞見, 其於兄弟宗黨友朋之急, 好以其身與焉, 而不出於庸庶人之見者, 亦幾何人也.”

15) 楚지역 사대부들이 지닌 俠儒의 정신은 근대시기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학자이자 문장가인 曾國藩, 그리고 그가 조직한 패배를 모르는 湘軍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湘西지역의 험을 숭상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沈從文은 “산이 높고 물이 급하게 흐르며, 거칠고 척박한 땅과 잦은 안개는, 이 지역 사람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游俠정신의 침륜이 과거를 만들 어내었고, 장차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희정신이 호족 집 자체들의 뇌리에 깊숙이 침투되어, 이 지역 讀書人の 관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沈從文<湘西·鳳凰>, 《沈從文全集》第9卷(廣州: 花城出版社, 1991), 412 쪽)

한 性情을 중시하고 ‘事功術策’, ‘氣骨任俠’을 숭상한 결과 名教, 格式, 道理를 구속으로서 배격하고 用功을 障道라고 배척한 顏山農, 何心隱 그리고 羅近溪와 같은 氣骨派¹⁶⁾의 사상가들이며, 당현조는 이들과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말로 당현조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는 진정한 儒俠·俠儒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顏山農은 江西省 吉安縣 출신으로, 布衣의 신분이면서도 강학으로 일세를 풍미한 游俠之士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가 뛰어난 가치를 지니는 것인 만큼 지식의 집적이나 개인적 수양은 필요하지 않으며, 古人の 학설이나 규범은 장애가 될 뿐이라는 학설을 내세웠고, “游俠을 숭상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는 일을 좋아하였다.”¹⁷⁾

何心隱(1517~1579) 역시 江西省 吉安府 사람으로 안산농에게서 사사하였고, 李卓吾와 함께 王明左派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자유사상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심은은 전통적인 ‘五倫’ 중에서도 특히 朋友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師弟朋友間에 몸을 두고 그들의 위난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아끼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협객의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時政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을 가함으로써 宰相 張居正의 탄압을 받아 도피생활을 해야 했고, 결국은 체포되어 仗殺되고 말았다. 耿定向은 하심은을 추모하는 글에서 “그 학문은 공자의 학문을 배웠고, 그 행동은 협과 유사하였다. 만금의 재산을 쓰기도 아끼워하지 않았으며, 삼공의 화를 돌우는 것을 즐거워하였다.”¹⁸⁾고 하였다. 안산농이나 하심은과 같은 左派 王學家들의 학문은 공자의 학문을 근본으로 하고, 거기에 유희의 실천의지를 결합한 성격이 강하였다.¹⁹⁾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입협적인 요소가

16) 岡田茂彦, 《王陽明と明末の儒學》(東京, 明德出版社, 1970) 185-188 참조.

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 민음사, 1992) 90쪽 재인용.

17) 黃宗羲, 《明儒學案》卷35 <泰州學案四>: “山農游俠好急人之難.”

18) 耿定向, 《耿天台全書》卷13: “其學學孔, 其行類俠. …傾萬金之產了不惜, 犯三公之怒以爲欣.”

19) 특히 “何心隱은 意氣를 귀하게 여겼다. 그에 의하면 사람으로서 의기가 없는 자는 없는데, 요는 그 大小에 있다. 의기가 작으면 자기 한 몸의 俠을 이루는

너무 강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모습을 뛰기도 하였다.

羅汝芳(1515~1588)은 南城으로 하심은과 함께 안산농에게서 배웠다. 그 역시 인류와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지만 온화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당권인사들과 큰 충돌이 없었고, 안산농이나 하심은처럼 정권에 의해 희생당하는 불행한 일도 없었다. 嘉靖41년(1562) 13살의 탕현조는 나근계를 좇아 “赤子之心”과 “孝慈”의 도를 공부했다. 하지만 스승과 헤어진 뒤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아, 성현의 책이 아닌 것을 읽고, 사망으로 돌아다니며, 번번이 氣義之士들과 교류하며,奮起하여 힘쓰고 지나치게 쏠려, 거의 본성을 잃고 지냈다.”²⁰⁾ 하지만 萬曆 15년(1587) 南京에서 스승 나근계를 다시 만나 “그대는 천하의 선비들과 더불어 날마다 흐트러져 비장한 노래를 부르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뜻인가! 성명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때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²¹⁾라는 힐난을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선생이 던진 화두를 가슴속에 담고 “조용히 지난날의 交遊를 돌아보게 된 뒤, 빼어난 풍취를 지닌 선비들이라도, 역시 다시 실컷 놀고 흠여지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²²⁾ 이때부터 조용히 침잠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道性을 공허한 것이라 여기고, 食色에 관한 本性을 참된 것이라 여기며, 호걸을 있는 것이라 여기고, 성인을 없는 것이라 여기는”²³⁾ 학문분위기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침내 “생을 이는 것이 성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며, 食色으

데 지나지 않지만 크면 天地의 道를 이루는데 이른다. 戰國의 諸公이나 荊軻、豫讓의 의기는 전자에 속하고, 孔門師弟의 의기는 후자에 속한다”(裴永東, 《明末清初思想》(서울, 민음사, 1992) 110쪽 참고)

- 20)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7, <秀才說>: “血氣未定, 讀非聖人之書, 所遊四方, 輒交其氣義之士, 蹈厲靡衍, 幾失其性.”
- 21)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7, <秀才說>: “子與天下士日泮渙悲歌, 意何爲者, 究竟於性命如何, 何時可了.”
- 22)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44, <答管東溟>: “嚙數以前交遊, 俊趣之士, 亦復遊衍判渙, 無有根抵.”
- 23)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7, <秀才說>: “士以道性爲虛, 以食色之性爲實; 以豪傑爲有, 以聖人爲無.”

로부터 성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호걸과 같은 선비는 옳은 것이나, 성현의 호방함을 迂視하는 것은 잘못이다”²⁴⁾ 라는 깨달음을 얻게되었다. 이는 ‘食色’과 ‘豪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食色’과 ‘知生’을 결합하려는 것이었고, ‘聖賢’과 ‘豪傑’을 결합하려는 것이다. 또한 ‘百姓日用之道’와 ‘孝慈’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식을 결합하는 것이고, 성현의 도와 호걸로 대표되는 협의 정신을 결합하려는 것이었다. 스승으로부터 ‘孝慈’를 중심으로 한 “性命”의 가르침을 받은 탕현조는 다시 귀양지 廣東에서 “生生之道”를 깨우치고, 여기에 안산농 하심은 달관 이탁오와 같은 임협지사들의 정신을 결합하여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유희의 경계를 벗어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儒俠意識을 체계화 하게 되었다.

三. 湯顯祖의 儒俠意識

1) 大人之俠

만력5년 이후 인성에 대한 중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난 탕현조는 백성들의 고난과 도처에 만연된 사회 부조리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각성은 만력19년(1591) 황제의 무능함과 대신의 전횡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論輔臣科臣疏>를 올려 기울어 가는 명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으로 유명했던 明王朝²⁵⁾가 쇠락의 길로 접어

24) 湯顯祖, 상동: “知生之爲性是也, 非食色也之生; 豪傑之士是也, 非迂視聖賢之豪.”

25)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탕현조는 <靑蓮閣記> 속에서 “세상에는 정이 넘치는 세상이 있고, 또 법이 있는 세상이 있다. …… 그러나 오늘날은 재능과 정을 말살하고 벼슬아치와 법을 숭상하고 있다.(世有有情之天下, 有有法之天下. …… 今天下大致滅才情而尊吏法.)고 하여 자기가 살았던 당시를 개인의 재능이나 정감을 무시하고 관리에 의한 법치가 엄격하게 진행되었던 “有法之天下”로 인식하였다. 《明史·刑法志》에 따르면 “刑法有創之明, 不衷古制者, 廷杖、東西廠、錦衣衛、鎮撫司獄是已, 是數者, 殺人至慘, 而不麗於法, 踵而行之, 至末造而極. 舉朝野命而一聽之武夫宦豎之手, 良可歎也.”라 하였다. 이를 통해 명대에 세

든 것은 이미 隆慶年間(1567~1572)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사회는 “金令이 하늘을 맡고 錢神이 땅에 우뚝 솟아, 탐욕은 끝이 없고 骨肉相爭이 벌어지고 사치가 넘쳐 그칠 줄 모르는”²⁶⁾ 혼란한 세상이 이어졌고,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부자는 백 명에 하나고, 가난한 자가 열에 아홉으로”²⁷⁾ 부의 편중과 사회분화가 심화되어 목숨은 붙어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萬曆年間에는 정치에 뜻을 잃은 神宗이 결원된 관원을 보충하지 않아 뛰어난 학문과 재능을 지녔지만 관직에 나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대부들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자기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였다. 탕현조는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모두 굶어 죽어도 나는 혼자 배부를 수 있고, 천하의 재주 있는 선비들이 모두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홀로 완고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²⁸⁾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형제나 종당, 친구를 위해 양식을 보태주거나 그들의 처지를 보살피 주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은 유와 협이 보고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니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협과 유지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은 대개 俠과 儒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큰 우환은 목숨은 붙어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 보다 급한 것이 없고, 재주 있는 선비가 세상의 혼란 속에 가려져 있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 보통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는 모두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고 말한다. ……

로 제정된 형법이 지극히 잔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엄격한 법이 지배하는 당시 사회는 이미 의협이나 유협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였다.

26)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卷32: “金令司天, 錢神卓地, 貪婪罔極, 骨肉相殘, 受身於亨.”

27) 顧炎武, 앞의 책: “富者百人而一, 貧者十人而九.”

28) 湯顯祖, 앞의 책, 詩文 卷34, <蘄水朱康侯行義記>: “天下皆若人之見, 則人盡可以餓死而我獨飽, 天下才士皆可辱可殺, 而我獨頑然而生, 推類以盡, 天下寧復有兄弟宗黨朋友相拯絕寄妻子之事耶.”

이러한 것들은 험이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또한 유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²⁹⁾

탕현조는 유와 험은 타인의 고통을 차마 무시하지 못하는 惻隱之心을 지닌 사람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는 보통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이 지닌 의로움과 사회적 공능을 긍정하여 유와 험의 정신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達觀과 나근계를 비교함을 통해 생명가치를 중시하는 儒俠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단서는 험이라 자칭하는 李超無라는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의 스승은 明德선생이시고, 벗은 達觀이라 하네 그 사람들은 모두 이미 고인이 되었네. 달관은 유희정신을 실천한 까닭에 세상에서 통행될 수 없었네. 현재는 천하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명덕선생을 돌이켜 생각하도록 할 따름이네.³⁰⁾

탕현조가 평생의 知己라고 소개한 達觀眞可는 李贄와 함께 晚明의 “大教主”라고 불린 인물이었다. 그는 출가한 승려였지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동정하고 정치 담당자인 관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을 진행하였으며, 만력황제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행되는 礦稅徵收에 죽음으로 맞선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만력 28년(1600) 강서로 탕현조를 찾아온 달관이 광세징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북경으로 가려는 뜻을 밝혔을 때 탕현조는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발길을 잡았다. 하지만 달관은 “나는 삭발을 할 때, 이미 목숨을 버린 것과 같다”³¹⁾라고 대답할 뿐 추호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

29) 상동: “人之大致, 惟俠與儒. 而人生大患, 莫急于有生而無食, 尤莫急于有士才而蒙世難. 庸庶人視之, 曰此皆無與吾事也. ……此俠者之所不欲聞 而亦非儒者之所欲見也”

30)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1, <李超無問劍集序>: “吾師明德夫子而友達觀, 其人皆已朽矣. 達觀以俠故, 不可以竟行於世. 天下悠悠, 令人轉思明德耳.”

31)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4, <滕趙仲一生祠記序>: “我當斷髮時, 已如斷頭.”

았다. 결국 환관들의 미움을 사게 된 달관은 “妖書”사건에 휘말려 그해 겨울 옥중에서 죽게 되었다. 탕현조는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달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지만,³²⁾ 협이라 자칭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의 행동을 완전히 긍정하지는 못하였다.

오랜 세월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스승이라고 말한 羅近溪 역시 재산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 열을 다한 인물이었으며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대부로서의 명예조차 돌보지 않는 보통의 유학자와 다른 유희정신을 지닌 사람이었다.³³⁾ “淮南格物說”을 제창한 王良의 삼전제자로 생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학의 한계를 넘어 자연생명체의 생존의 가치를 긍정하는 ‘唯生論’적인 사상을 지닌 나근계는 유희행을 행했지만 이로 인해 자기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탕현조는 인간의 생명가치를 망각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당시 사회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좌시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희행을 행한 스승 나근계를 大人이라 불렀다. 탕현조는 “천지와 그 덕이 부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이 부합하며, 사시와 그 질서가 부합하는”³⁴⁾ 대인의 학문은 ‘知生’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대인의 학문은 생명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생명을 아는 즉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아가 천하의 생명이 모두 마땅히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의 생이 큰 것인데, 내가 어찌 사물로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천하의 생이 오랜 것인데 내 어찌 몸으로 그것을 해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³⁵⁾

32) 湯顯祖는 達觀의 죽음을 접하고 <西哭三首>, <水月疎山尋達公遊處 并問吳選部四首> 등 여러 편의 시에서 그의 의협적인 행위와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겼다.

33) 稽文甫, 《晚明思想史論》(北京, 東方出版社, 1996), 32쪽 참고.

34) 《周易》<乾卦·文言傳>: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35) 湯顯祖, 앞의 책, 詩文 卷37, <貴生書院說> “大人之學, 起于知生. 知生則知自

천하의 모든 생명이 ‘天地大德’의 체현이며, 모든 생명체는 개체생명으로서의 존엄성과 생존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깨달은 대인들은 언제나 仁에 거하고 있어 너그럽고,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의로우며, 외재적 도덕이나 법률 보다는 사람에 내재한 정감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탕현조가 강조하는 ‘儒俠’은 달관이나 허심은과 같이 타인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희생하는 ‘游俠之士’와는 다른, 천지대덕의 체현인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낳아주신 골육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도 유협행을 하는 니근계와 같은 ‘大人之俠’을 의미하는 것이다.

2) 不殺人之劍

우리가 유협을 떠올릴 때 함께 연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劍일 것이다. 유협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사로이 시비와 생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검을 통해 직접 행동에 옮기는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검을 유협의 대명사쯤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도연명과 같은 시인도 “검을 잡고 혼자서 먼 곳까지 주유하였으며, 주리면 고사리를 먹고, 목마르면 역수의 물을 마시며 천지를 유랑하였다.”³⁶⁾고 하여 검을 통해 협을 숭상하는 자신의 호방함을 드러내었다. 이백과 같은 낭만적인 시인은 “웃으며 한 잔술을 들이키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인다”³⁷⁾고 노래하고, 실제 검으로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宋代이후 대부분의 문인들에게 있어 검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호방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전의 기능은 소실되게 되었다.³⁸⁾

貴, 又知天下之生皆當貴重也. 然則天地之性大矣, 吾何敢以物限之. 天下之生久矣, 吾安忍以身毀之.”

36) 陶淵明, 《陶淵明集》, <擬古九首>其8: “少時壯且厲, 撫劍獨行游. 誰言行游近, 張掖至幽州. 飢食首陽薇, 渴飲易水流.”

37) 李白, 《李白集》卷3, <結客少年場行>: “笑盡一杯酒 殺人都市中”

38)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 (新世界出版社, 北京, 2002년), 235-236쪽 참조.

천지자연의 “生生之道”를 깨달아 스스로의 몸을 중히 여기며,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大人之俠’을 강조한 당현조 역시 검을 이야기하기 좋아 하였다. 하지만 儒俠이 몸에 지닌 검은 시퍼렇게 날이 선 游俠들의 검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현조는 《莊子·說劍》의 이야기를 빌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삶을 키워나가는 儒俠이 사용하는 검을 설명하였다. 그는 趙나라 文王의 궁정에서 서로 죽이기를 일로 삼는 검객들이 휘두르는 庶人之劍³⁹⁾을 부정하고 四時와 五行으로 운용되는 천자의 검을 강조하였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천자의 검이란, 四季로 싸여있고, 오행으로 제어하고, 형벌과 상덕으로써 논변하며, 음양의 변화로 움직이는 것이다. 음양이란 부부인 것이다. 그러한 것은 위로는 뜬구름도 쪼개고, 아래로는 땅을 지탱하는 큰 줄도 자를 수 있다.⁴⁰⁾

천자의 검은 이미 道로서 검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늘과 땅의 도에 자세하여 얽매이는 것이 없으며, 이미 생명을 창조하고 기르는 것으로 功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당현조가 강조하는 유희의 검이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길러내는 생명의 검인 것이다.

또 당현조는 《列子》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衛나라 孔周의 보검을 빌리고자 했던 來丹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검의 도리와 이를 만든 장인의 높은 정신세계를 설명하였다.

얼지에서 말하는 보려고 하나 볼 수 없고, 어림껏이 있는 것 같고, 혹은 그림자만 보이고 그 빛을 볼 수없는 검 역시 사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

39) 《莊子·說劍》: “庶人之劍, 蓬頭突鬢, 垂冠, 曼胡之纓, 短後之衣, 瞋目而語難相擊於前, 上斬頸領, 下決肝肺, 此庶人之劍, 無異於鬪雞, 一旦命已絕矣, 無所用於國事.”

40)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1, <李超無問劍集序>: “莊生說天子之劍, 裹以四時, 制以五行, 論以刑德, 開以陰陽. 陰陽者, 夫妻也. 若然者, 上決浮雲, 下絕地紀.”

한 검을 만들어 낸 사람은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⁴¹⁾

위나라 공주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舍光劍, 承影劍, 宵練劍⁴²⁾은 모두 殷나라 湯王이 사용했다는 보검으로 어린아이라도 이 검을 가지면 삼군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검은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내단이 빌린 宵練劍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잠시 통증을 느끼게 할 뿐, 배인 자리는 이내 아물어 생명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검이었다. 내단은 검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찔렀기에 원수를 갚은 셈이 되고, 칼에 찔린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았고, 자기를 경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湯顯祖는 공주의 보검도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고, 보검 자체보다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검을 만든 장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높은 정신세계를 더욱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佛家에서 말하는 ‘活人之劍’의 도를 설명하였다.

그대는 이미 머리를 쥐고 승려가 된 일이 있었으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검이 있음을 알 것이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검의 도리가 아니네⁴³⁾

불가에서는 생명을 가진 森羅萬象은 모두 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나 이외의 존재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無我思想을 강조하였다. 이 무아사상은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통일체 사상으로 발전하게

41)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1, <李超無問劍集序>: “列子所稱視之不可見, 若有物存. 或見影而不見光. 乃是物也. 然鑄此劍者, 皆不能殺人..”

42) 《列子·湯問》: “曰, 吾有三劍, 唯子所擇; 皆不能殺人, 且先言其狀. 一曰舍光, 視之不可見, 運之不知有. 其所觸也, 泯然無際. 經物而物不覺. 二曰承影, 將且昧爽之交, 日夕昏明之際, 北面而察之, 淡淡焉若有物存, 莫識其狀. 其所觸也, 竊竊然有聲, 經物而物不疾也. 三曰宵練, 方晝則見影而不見光, 方夜見光而不見形. 其觸物也, 騫然而過, 隨過隨合, 覺疾而不血刃焉. 此三寶者, 傳之十三世矣, 而無施於事. 匣而藏之, 未嘗啓封.”

43)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1, <李超無問劍集序>: “嘗斬髮而爲僧, 亦知有不殺人之劍乎. 殺人者, 非劍也.”

되었으며 생명을 지닌 것 중 그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검을 부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검을 운용하라는 가르침을 펼쳤다.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탕현조는 株宏禪師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눈물 흘리고 살생을 금하는 계를 짓자 기꺼이 서를 지어 자비의 도리를 전하고자 하였고,⁴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쓴 《訣世語七首》속에서도 자기를 위해 犧牲을 잡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⁴⁵⁾

열자와 장자와 같은 道家의 검, 佛家의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검의 이야기를 빌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活劍을 긍정한 탕현조는 자기가 평생 품고 있던 豫章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나의 예장검과 같은 것은, 능히 두병(斗柄)을 바랄 수도 있고, 교룡이 될 수도 있으나, 끝내 세상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할 수 없었으니, 生生의 도라 할 수 없다⁴⁶⁾

탕현조는 “斗란 ‘하늘의 눈’이고, 天機가 발동하는 곳이며, 龍蛇는 땅의 기라”⁴⁷⁾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예장검이란 天地의 ‘生生之道를’ 갖춘 儒俠의 검인 것이다. 탕현조는 하늘과 땅, 음과 양, 즉 천지운행의 기를 가진 예장검을 가졌지만 끝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진정한 생명의 도를 실천할 수 없었음을 아쉬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탕현조가 이야기하는 儒俠이란 ‘生生不息’하는 生道の 근본에 따라 살고, 天命에 따름으로써 우주의 창조정신의 위대한

44)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0, <株宏先生戒殺文抒>

45)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16, <一祈免牲>“肉食而鄙, 六十七年於斯矣. 殺業有徵, 報何所低. 每見牲奠, 腥污塗藉, 大非清虛所宜. 乞哀嫗遊, 幸免性命, 止求蔬水見遺. 非徒省穢存潔, 亦大爲鄙人資冥福也. 更煩屠宰到門不預乞免者, 子爲不孝.”

46)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1, <李超無問劍集序>: “若吾豫章之劍, 能干斗柄, 成蛟龍, 終不能已世之亂, 不足爲生道也.”

47)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42, <陰符經解>: “天機發在斗. 斗者, 天地目也. …… 龍蛇者, 地之氣也.”

기상을 깨닫고, 커다란 자비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大人之俠’이며, 그들이 몸에 지닌 검은 생명을 죽이는 ‘殺劍’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르는 ‘活劍’이라고 할 것이다.

四. 儒俠意識과 《紫釵記》의 완성

탕현조의 “임친사몽” 중에서 儒俠意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작품은 《紫釵記》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차기》는 《紫簫記》와 함께 唐代傳奇 《霍小玉傳》을 저본으로 창작된 것이다. 하지만 두 작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희곡작품인 《자소기》가 완성된 것은 대략 萬曆5年 가을에서 7년 가을(1577~1579)사이의 일이다.⁴⁸⁾ 《자차기》의 成書年代에 관해서는 아직 이론이 존재하지만 문헌기록에 따르면 탕현조는 만력15년(1585) “남경에서는 시간이 많아, (자소기를) 다시 정리하고 윤색을 마친 후 《자차기》라 이름 하였다.”⁴⁹⁾고 하였고, 臧懋循改本の <紫釵記題詞>에 따르면 탕현조가 遂昌知縣으로 재직 중이던 만력23년(1595) 봄 不惑을 훨씬 넘긴 49세 때에 최종적으로 윤색하고 출간하였다고 한다.⁵⁰⁾ 여기에서 보듯이 《자소기》와 《자차기》의 완성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기간은 탕현조의 인성에 대한 인식과 문학창작에 있어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 시기이다.⁵¹⁾ 그러므로 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작가의 인성과 문학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48) 徐朔方, 《湯顯祖年譜》, 附錄 乙<玉茗堂傳奇創作年代考>(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3)

49) 湯顯祖, 같은 책, <紫釵記題詞>: “南都多暇 更爲刪潤 訖名紫釵”

50) 徐朔方, 《湯顯祖評傳》(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3), 63쪽 참고.

51) 錢謙益, 《湯遂昌顯祖傳》: “義仍少熟文選 中攻聲律 四十以後 詩變而之香山、眉山, 文變而之南豐, 臨川.”

어린나이부터 《文選》에 심취했고 聲律에 밝았던 당현조는 《자소기》를 짓기 전부터 상당한 문명이 나왔었다. 큰 아들과 셋째아들을 전국의 명사들과 함께 과거에 급제시키고자하여 전국에 문명이 높은 수재를 찾고 있던 宰相 張居正은 당현조의 문명을 듣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 장원으로 급제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성격이 곧았던 당현조는 장거정의 두 차례 제의를 모두 거절하였고, 그 결과는 두 번의 春試 낙방으로 이어졌다. 이미 몇 차례 과거에 실패한 당현조는 더 이상 과거를 위해 八股文을 짓거나 성현의 책을 보지 않았으며, “소일삼아 詩賦歌舞에 탐닉했고 沈君典 등과 같은 험객들과 어울렸고,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으며,”⁵²⁾ 많은 시간을 기루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즈음에 그는 심군진 謝九紫, 吳拾之 등의 친구들과 함께 唐 傳奇小說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감동적인 작품⁵³⁾이라고 평가되는 《곽소옥전》을 저본으로 《紫簫記》를 지었다. 뛰어난 문재를 지녔던 당현조와 명문가의 자제들에게 있어 才子佳人 李益과 霍小玉의 사랑이야기는 적합한 소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소기》는 스토리구성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四六駢麗文을 사용한 화려한 문사와 곡률에 대한 그의 지식을 펼쳐놓은 미완성작 이었다.⁵⁴⁾ 특히 명문가 자제들의 유희거리로 이어졌던 《자소기》 속에는 《곽소옥전》이 오랜 세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사회 부조리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날카로운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봉건시대 부녀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동정하는 내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단서는 바로 第4齣 <換馬>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방에서 큰 전공을 세워 立身揚名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驃騎將軍 花小卿이 郭小侯의 명마를 구하고자 하자 이익은 화소경에게 그의 애첩 鮑四娘과 곽소후

52)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44, <答管東溟>: “後稍流浪, 戲逐詩賦歌舞, 遊俠如沈君典輩, 相與傲倪優伊”

53)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唐人小說記閨閣事, 綽有情致, 此篇尤爲唐人最精彩動人之傳奇, 故傳誦弗衰.”

54) 湯顯祖, 위의 책, 詩文 卷33, <紫簫記題詞>: “案頭之書, 非臺上之曲”

의 말을 맞바꿀 것을 제의하고,⁵⁵⁾ 이를 원망하는 포사낭에게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화소경 역시 말과 애첩을 맞바꾸고는 그녀에게 장부의 뜻은 공명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밤에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 것을 당부할 뿐이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기녀를 사고팔거나 선물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탕현조의 인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차기》 속에는 <환마>에서와 같은 말과 사람을 맞바꾸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생명존엄과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고자 하는 탕현조의 변화된 인성관과 창작의지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창작태도의 변화는 인성에 대한 자각과 광동 유배생활 중에 접하게 된 달관과 이탁오의 글들⁵⁶⁾을 통해 개인의 생명가치를 긍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희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현실정치에서 실현할 수 없는 그의 이상을 문학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차기》속에는 더 이상 말과 바꾸어진 비운의 여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곽소옥과 같은 갓 피어난 어린생명이 부도덕한 사대부에게 버림받고, 冤鬼가 되어 구천을 방황하게 된다는 비극적 결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儒와 俠이 보고,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소기》와 비교해 《자차기》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은 바로 협의 정신이다. 탕현조는 곽소옥의 진정한 사랑과 그녀의 생명을 보호해줄 雄俠 黃杉客과 雌俠 포사낭의 인물형상에 주의하였으며, 비운의 여인 곽소옥에게도 지인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위해 재산을 아끼지 않는 협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먼저 그는 《자소기》에서 말과 맞바꾸어졌던 비운의 여인 포사낭을 豪俠 황삼객과 짝을 이루는 雌俠, 閨俠으로 바

55) 《紫簫記》第4齣: “驃騎愛金埒名馬, 郭小侯賞玉塵之妙音, 倘肯相移, 各成其美”

56) 湯顯祖, 같은 책, <答管東溟>: “見以可上人之雄, 聽以李百泉之傑. 尋其吐屬, 如獲美劍.”

꾸어 놓았다. 그녀는 곽소옥과 이익을 위해 부부의 연을 맺어주었고, 언제나 곽소옥 옆에서 그녀의 사랑과 이별을 함께 기뻐하고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친절한 여인으로 형상화되었다. 또한 이익의 배신을 전해 듣고 “교활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구나, 죽어도 뼈를 묻을 땅이 없을 것이다. 특히 풍류의 일은 정말 추측하기 어렵구나, 도리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는 것. 가인의 운명이 기박하여, 낮이 나간 사람 같구나. 무관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난간을 치리라.”⁵⁷⁾ 라고 이익의 행위에 분노를 표하는 당당한 여협의 모습이었다. “醉俠閑評”에서 豪俠 황삼객은 鮑四娘을 “규중의 협이요, 錦陳의 호걸이라, 이름을 들은 지 오래나 아직 늙지 않았구나.”⁵⁸⁾라고 칭찬하였고, 포사냥은 황삼객에게 변심한 이익을 위해 절개를 지키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 곽소옥의 이야기를 전하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하는 황삼객의 공분을 이끌어 내었다.

《자차기》속에서 당현조가 가장 공을 들여 형상화한 인물은 황삼객이라고 할 것이다. 《곽소옥전》에서 황삼객의 등장은 아주 돌발적인 것이었지만 《자차기》에서는 그의 등장에 대해 세심한 안배를 하고 있다. 6齣속에서는 原宵節 저녁 燈을 보러가는 길에 곽소옥과 황삼객의 우연한 만남을 설정하고, 황삼객의 호방함에 대한 곽소옥의 호감을 간접적으로 형상화 하였다.⁵⁹⁾ 제12작 속에서는 곽소옥과의 혼례를 위해 시종과 말을 빌려온 이익의 친구들에게 혼례하 사람과 말을 내어주는 황삼객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황삼객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또 48작 속에서는 술집주인과 포사냥에게서 곽소옥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황삼객은 칼을 뽑아 이 불평한 일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57) 湯顯祖, 위의 책, 《紫釵記》第38齣, “秀才無賴, 死去也不着骸. 越樣風流賽, 眞個難猜, 不道將人害. 是佳人命薄, 慣了些呆打孩. 咱橫枝兒聽着, 也不分把關干拍.”

58) 湯顯祖, 위의 책, 《紫釵記》第48齣, “他是閩中俠, 錦陳豪, 聞名幾年還未老.”

59) 湯顯祖, 위의 책, 《紫釵記》第6齣, “前面好漢, 是甚姓名, 人高馬大, 遮了俺們看燈路兒也.”

내가 보기에 李十郎이라는 이 배신자는 盧太衛에 겁을 먹어, 전처 소옥으로 하여 이토록 처량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인간 세상에 있어 가장 불평한 일이다! 내가 칼을 뽑아 구하지 않는다면 일세의 영웅의 일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⁶⁰⁾

황삼객은 세상의 불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노태위의 수하들을 향해 스스로없이 雌雄劍을 뽑아들었고, 세상의 불평한 일을 자행하는 사회의 최고 권력에 칼로서 대항하였다. 당현조의 손에 의해 황삼객은 언제라도 칼을 뽑을 준비가 되어있는 游俠、劍俠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황삼객에게 한 여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비바람을 걱정하는 情俠의 모습을 부여하였다.

내가 저 의미 없는 녀석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단지 나 무를 소중히 여겨 修月斧를 들어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누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⁶¹⁾

세상에서 가장 불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을 살해하려는 뜻을 가졌던 황삼객은 무엇이 진정 곱소옥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삼객은 겁을 뽑아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愛世之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傷春悲秋’하고 생명을 가엽게 여기 줄 이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유희이다. 황삼객에게서는 더 이상 이지와 같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 칼로 목을 찌르는 모습이 나, 刑場에서 망나니에게 기꺼이 목을 내미는 달관과 같은 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노태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이익을 곱소옥에게 되돌려 보낸 그의 비범한 능력이 皇室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있기는 황삼객은

60) 湯顯祖, 위의 책, 《紫釵記》第48出·〈醉俠〉, “俺看李十郎這負心人爲盧府所劫, 使前妻小玉一寒至此, 此乃人間第一不平事也! 俺不拔刀相救, 枉爲一世英雄.”

61) 湯顯祖, 위의 책, 《紫釵記》第48齣, “咱要誅了這無義漢何難, 只是惜樹怕拿修月斧, 愛花須築避風臺.”

儒俠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탕현조의 개작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한 탕현조의 분신이며 儒俠의 전형으로 탄생하였다.

《곽소옥전》을 저본으로 한 《紫簫記》와 《紫鑿記》가 서로 다른 주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생명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자소기》와 《자차기》에 대한 문학계의 평가는 높지 않지만 《자차기》의 완성은 탕현조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탕현조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五. 結 論

孔子는 “지사와 인지는 살기위해 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바쳐 인을 이룬다.”⁶²⁾고하여 ‘仁’을 실천하기위해서는 생명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孟子 역시 “생명 역시 내가 원하는 바이고, 義 역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이다. 만약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면 생명을 버리고 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⁶³⁾ 유가는 생명의 사회적 가치를 자연생명의 그것보다 우위에 두었으며, 그 안에 인간존재의 존엄성이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자연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사회적 가치를 더럽히는 것은 자연생명이 존재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인류생명이 존재하는 존엄성과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선진시기에 활동했던 협객들 역시 신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연생명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이처럼 선진시기의 유자나 협객들은 자연생명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생명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집단이었다. 근대시기 답사동이나 장태엽과 같은 지식인들이 儒俠의식을 강조하고, 유가와 협을 통일시키고자 한 것도 바로 이

62) 《論語·衛靈公》: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63) 《孟子·告子上》: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捨生取義者也”

러한 부분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탕현조가 제기한 儒俠 의식이란 유·불·도를 중심으로 하는 상층문화 속에 녹아있는 ‘貴生意識’과 ‘全身意識’을 강조한 것이다. 유가에서 온전한 육신을 지키고자 한 것은 효의 윤리도덕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도가가 온전한 육체를 강조한 것은 생명의 본연가치를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탕현조의 귀생의식에 따르면 육체생명을 아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천지와 선조 그리고 부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중시하고 몸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귀생의식은 탕현조가 강조하는 ‘情’의 또 다른 한 모습이며, 문학창작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나날이 경시되는 이 시점에서 탕현조가 제기한 유희의식과 그의 작품들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湯顯祖, 徐朔方箋校, 《湯顯祖全集》(全4冊),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9.
 毛效同編, 《湯顯祖資料彙編》(全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列子, 《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莊子, 《莊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5.
 韓非, 《韓非子》, 北京, 中華書局, 1995.
 陶淵明, 《陶淵明全集》, 北京, 中華書局, 1995.
 李白, 《李太白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朱熹,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李賢等撰, 《大明一統志》, 西安, 三秦出版社, 1990.
 黃宗羲, 《明儒學案》, 臺北, 華山出版社, 1998.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臺北, 廣文書局, 1968.

- 劉凌 編校,《章太炎學術論著》,浙江,浙江人民出版社,1998.
- 沈從文,《沈從文全集》第9卷,廣州,花城出版社,1991.
- 稽文甫,《晚明思想史論》,北京,東方出版社,1996.
- 章培恒 主編,《明代文學研究》,江西,江西人民出版社,1990.
- 陳平原,《千古文人俠客夢》,北京,新世界出版社,2002.
- 章培恒,羅玉明主編,《中國文學史》,上海,上海文藝出版社,2001.
- 龔鵬程,《中國文人階層史論》,蘭州,蘭州大學出版社,2004.
- 拙稿,〈湯顯祖的江西意識與吳文人的矛盾〉,《戲劇研究》(上海,上海戲劇學院,2001)第1期.
- 拙稿,〈貴生思想初探〉,《中國學研究》第5輯(濟南,濟南出版社,2001)

〈中文提要〉

中國知識分子的人格構成確實不是單一的,而是夏雜的、多層面的。中國知識分子的傳統人格的形成,卻不僅與儒道佛等上層文化有關,更與下層文化有關。特別,俠以及民間對俠崇拜敬慕的普遍心理,對於知識分子的理想人格的塑成,具有十分重要的意義。到了明代,俠的形象已大抵正面化、高大正義化了。中國明代偉大的戲劇家,進步思想家湯顯祖也很重視民間發生來的俠的傳統。但是,重視“貴生”的他,不能全面地肯定“輕生重義”的游俠的犧牲精神。所以,他極力追求重視生命價值的儒道佛思想和“俠”的統一,提出了“儒俠”意識。他說的“儒俠”不但重視生命的社會價值,也重視人的自然生命價值。所以,他說的“儒俠”跟傳統的游俠意識不同,也近代知識分子章太炎、譚嗣同說的“儒俠”不一樣。

湯顯祖的“儒俠”意識給影響了他的文學創作。特別,在《紫釵記》創作過程中特別重視黃衫客。黃衫客在湯顯祖的筆下成為儒俠的典型人物,在他的身上可以看出作者湯顯祖的生命重視思想。雖然文學界的對《紫釵記》的評價比《牡丹亭》不高,但是在湯顯祖本身和研究湯顯祖方面還是很有意義的

作品。

주제어 : 儒俠意識, 游俠意識, 晚明, 陽明學左派, 貴生思想, 江西 《紫簫記》,
《紫釵記》

K C I